

사설

강원장사 육성 '값진 결정'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조계종의 3대 종책사업의 하나라고 하지 만 도제양성은 단연 첫번째가 아닐 수 없다. 승려교육은 일반교육과는 전혀 다르다. 요즈음 대학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대학만이 최고 지성인을 양성하고 대학교육이 최고 의 교육이라고 하지만, 승려교육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대학에서 석사·박사를 하고 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승려의 교육은 절에서 익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이 아무리 질 높은 불교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소위 승려의 물을 들여 스님의 맛을 느끼게 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스님은 어렸든 산중의 절에서 장편의 때가 묻고 대중의 물이 들어야 승려 본연의 풍유가 배어난다.

강원교육이 언제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잡아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교의 강원은 승려의 기본교육 기관으로 승려를 스님되게 하는 산실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결국 불교의 미래는 승가교육기관인 강원인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강원(지방승가대학)에 장사(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게 보인다. 언젠가 어떤 대본사에서 강원엔 강주를 모시지 못하여 고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문제는 있다. 본래 선원에서는 조실이 어른이고 강원에서는 강주가 어른이었다. 그런데 어떤 종교인지 조실은 대단히 권위적인 대접을 받게 되었으나 강원은 강주는 주지 마름대로 바뀔 수 있고 산승 어른의 자리에서 교무의 밑자리로 밀려나 버렸다.

이러한 차이에 강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 강원대산 대학이라는 영거주촌한 명칭이 불어 중앙승가대학과 혼돈을 일으키게 되었다.

또 젊은 승려들이 대학이라는 명칭(名稱)에 이목을 끌게 되면서 산중강원의 학인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대접 소홀한 강원 강사의 길로 나아갈 스님도 점차 보기 드물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조계종 교육원이 원래에 없던 전문전문강원의 강사를 양성하여 출가교육의 종가인 강원교육을 되살리겠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이러한 종단예산에서 확보된 교육예산은 중앙승가대학 지원에 쫓기면서도 3억6천만원이란 예산을 확보하여 직지사예 강사양성을 위한 특수학원을 설치하고 전문강원 강사 지명생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전문연구에 몰두하도록 한다고 한다.

불교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일이다. 중앙승가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산중에 있는 전문강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종책이라 적극 환영한다.

승려의 기본교육은 반드시 수행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수행교육은 나만의 독특한 고도인 일정한 정규가 수반되어야 갖게 된다. 이번 조계종 교육원의 강사양성 계획은 계(戒)·정(定)·혜(慧)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자급부타라도 충실히 뒷받침을 하면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승단가풍은 바로 여기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재양성을 30년 대작불사를 마무리한 직지사가 유지하게 된 것은 해당사찰의 교육열의를 잘 반영한 것이라 본다. 이제 한국불교의 동량을 세우는 종단의 교육불사가 차근차근 원만성취 되도록 종단과 종도들의 관심과 동참, 지원이 적극 뒤따라야 하겠다.

열린 마당

문화재보호법 개정

교계의 오랜 숙원이던 문화재 보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람료 금액 결정의 자율화, 예치금제도의 폐지, 경미한 현상변경의 자율화 등이 주내용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폐지됨으로써 교계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자율성을 한층 높게 되었다. 법안통과를 계기로 교계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관람료 관리, 선보관리, 불교문화 홍보 등 각 방면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관람료 수입 각종 불사에 폭넓게 써야

관람료 수입 각종 불사에 폭넓게 써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관람료 관리방법은 내년 3월 결산총회에서 다시 검토, 통과될 전망이다. 그사이인 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재 보호법의 시행령인 7월1일 이전에 교계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단은 문화재 관람료와 공인 입장료 합동징수의 법적화를 추진하는 등 국립공원과 관련한 종단의 입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관람료 관리방법은 내년 3월 결산총회에서 다시 검토, 통과될 전망이다. 그사이인 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재 보호법의 시행령인 7월1일 이전에 교계는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단은 문화재 관람료와 공인 입장료 합동징수의 법적화를 추진하는 등 국립공원과 관련한 종단의 입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참배공간 활용... 보존관리 능력 배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은 선보관리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온 것에서 탈피, 불교계의 관리능력이 인정된 결과이다. 다시말해 불교계가 스스로 선보관리에 부가된 자율성인 책임을 다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선보관리 체계의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면서 불교계는 우선 선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선보는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이 지녔던 예술성과 지극한 신앙심이 결집된 성스러운 문화재이다. 선보한정 한점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고 펼치기 위해 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은 선보관리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온 것에서 탈피, 불교계의 관리능력이 인정된 결과이다. 다시말해 불교계가 스스로 선보관리에 부가된 자율성인 책임을 다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선보관리 체계의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면서 불교계는 우선 선보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선보는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이 지녔던 예술성과 지극한 신앙심이 결집된 성스러운 문화재이다. 선보한정 한점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고 펼치기 위해 제

정보전담기구 설립 연구·계몽 등 주력

이 기선 <불교종교연구소 소장>

이 일을 계기로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보전관리할 것인지 기본적인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정부의 문화재보전(보전)정책에 끌려가던 타율성에서 벗어나 불교계 스스로가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우선 선보문화재보전법을 제정하자. 선보의 개념과 그 범주, 보전관리의 대상과 방식, 보전관리의 주체와 그 권리 의무사항, 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 선보의 보전관리를 활용한 홍보, 계몽, 교육 등등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법규와 긴밀한 법률적 틀을 갖추어야 하겠다.

둘째로, 선보문화재보전관리를 위해 선보조사관, 선보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재관료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였으므로 마땅히 일정비율을 문화재보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 조사 수립 보존 전시 교육 계몽에 활용토록 하자.

셋째로, 선보문화재의 보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이다. 선보문화재의 보전관리의 주체 그리고 전문인으로 정부의 문화재관리국에 견줄 수 있는 중앙기구를 불교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선보문화재를 활용한 홍보의 확대 방안이다. 안내책자의 간행, 전문 안내인에 의한 설명이 현장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겠고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찰공간을 활용한 각종 문화행사 기획되어 우리 불교를 이끄는 주체가 불교문화임을 새로이 인식시켜야 하겠다.

시론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최근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30세이상 도시사람들의 노후생활에 관한 의식 및 준비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인 85%가 자신의 노후생활을 부양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자립의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이 개인적 가치에 우선했고 '효'라는 윤리적 원칙이 가족관계의 근본 원리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노후', '행복한 노인'의 이미지는 많은 효성스러운 자식과 손 자녀에 둘러싸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존경과 권위, 명예를 누리며 장수하는 것이었으니 여기서 노인은 연장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재산을 관리했고 전통의 수호자로 여러 의식(儀式)을 주관했으며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家長)의 위치를 함유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개인주의와 독립성에 대한 가치가 전통의 가족주의보다 우위의 가치로서 점차 현대 한국문화를 지배하면서 가족주의라는 보호장치를 잃은 오늘날의 노인들은 고립과 불안정의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이한 것은 젊은이들의 노인부양의 식 변화와 함께 노인 스스로 자녀들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효로서기 노인'들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년 스스로의 의식변화는 단지 쓸모없는 존재이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되고 싶지 않은 노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방안이라는 믿음에서 외로움과 고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독립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같이 노인의 부양을 담당해 왔던 가족부양기능이 산업화로 인해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능력이 노후준비를 위한 정신적, 물질적 여유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며 또한 오늘날의 노인들은 현시대에 요구되는 제반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병든 현실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효로서기 노인' 증가

근대 서구의 사회정책의 역사는 노령화와 함께 그에 수반되는 위험들에 대비하여, 특히 홀로 고립될 수 있는 노인의 부양을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더이상 노인의 문제를 한 가족내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이들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떠넘겨서는 노인문제

의 해결 내지는 노인복지증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까지의 우리 사회는 노인의 문제를 단지 가족내의 문제에만 여겨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현대 노인들을 위하여 전통적인 가족의 노후부양기능을 보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노인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일임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 가정보호 후 복지'라는 논리로 노인복지는 늘 뒷전이였다. 이제 더이상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혹은 그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그 내면을 알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뇌, 아픔을 국가, 사회가 나눠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노인문제 해결 내지 노인복지증진은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효 실천이 보살정신

오늘날 우리사회 노인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양상중의 하나는 경제적 인 불안정이며 또 하나는 노인의 건강과 화와 건강보호 문제이다. 이 두가지와 함께 노인의 역할 상실 문제와 사회·심리적인 갈등과 소외 문제 등을 한데 묶어 '노인의 4고(苦)'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문제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로 각각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각자가 서로 얽고 깊게 살펴있듯이 그 해결점 역시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각 현 <스님·연꽃마을 이사장>

현대만평



어디로 가고 있나...

"암·중풍·성인병·부인병·신경통·관절염·당뇨병·고혈압·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비법!"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급 안내

● 속뜸은 몇천년 동안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왔으나 뜨거운 고 통을 견디기 어렵고 몸에 흉터가 생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바라밀속뜸기로 뜨거운 고통없이 자신의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평생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 수십만엔대의 보약과 약을 드시고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효과를 못 보신 분, "이런 분은,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 속뜸기로 집안에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으로 왜 인체의 병이 치료되는가?

인체에 병이 생기는 것은 마비, 확장, 열증, 수축, 경화, 세균, 내분비 부조화, 혈액순환장애, 신경과 체액의 불균형, 기(氣)의 순환이 원활치 못하는 등으로 병이 생기는데 바라밀 속뜸으로 온몸에 퍼져있는 응혈을 깨워주는 경맥중 배꼽, 단전, 중완혈에 속뜸의 강한 에너지를 경맥에 투입시키고 피부호흡, 모세혈관, 기혈(氣血) 작용을 적용시켜 기혈을 순환시키며, 5장6부과 각 기관과 조직에 기혈을 보충시켜주고 열증과 세균과 온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어 질병을 치유하는 원리이다.

즉 속뜸은 속을 태울 때 생기는 속적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 속뜸에서는 속적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피부구멍) 속으로 흡수시켜 거기에 오장육부와 12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열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살갗을 태워서 뜨거운 고통이나 열증을 생기게 하는 재래식 속뜸방법은 주로 뜨거운 열자극 효과로만 병을 치료코자하여 병을 완치시키는데는 함기 어려운 고통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흡한 것이다.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림프관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쇠약, 경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설장애, 피부미용, 시력저하, 알레르기성체질, 습·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상 도우미가 권리한 신변에 혼자서 30분씩 할자리로 동석해 볼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곳에 한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한자리에만 효과있게 속뜸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속뜸건강요법

바라밀속뜸기의 원리요법과 특징

신약중의 신약인 각종 약물을 대신하여 속뜸기 재료로 사용되고 약력의 강약으로 질병의 정도와 미묘한 방법을 맞출 수 있게 하였다.

반약과 과열과 경변사 등 10여가지로 만든 속뜸기통을 만들었다.

약국이 타면서 발생하는 속적기스와 원발체의 약효 성분이 합쳐져 속뜸기의 작용으로 30분 할자리 집중적으로 세차게 하여 5장6부의 기혈을 순환시키고 열증과 세균을 제거하여 질병을 치유시킨다. 이때 피부표면에 보이는 속적기스는 열감, 찌릿, 찢어짐을 하는 인체조직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속뜸치료와 병행하여 복용하는 병약용 얻을 수 있다.

속뜸기 내용

- 1) 바라밀 속뜸을 들 수 있는 15가지 도구세트(바라밀속뜸기 약 2개, 원본 포함)
- 2) 속뜸도구세트 설명서
- 3) 속뜸기 완성으로 원가책이 사용

바라밀속뜸기를 개발하신 각광스님 역력

-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회장
- 부산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원장
- 10여년간 불교전통 및 자연건강요법 연구·수련
- 다년간 수련생들 모집하여 수련과 강의를 하고 있음

알 등의 난치병은 물론이고 최근 질병에서 전 질병까지 온갖 질병을 집안에서 자기손으로 쉽게 치유시킬 수 있으며 신병에 대한 체내의 면역기능과 저항력을 증강시켜 주는 바라밀 속뜸기

■ 사찰에서 요청시 순회강의도 해드리며 신도들에게 스님에게 직접 보급되고자 하던 문화에서 위치 스님을 찾아뵙고 보급방법 등을 의논드리고있습니다.
(보급료 비로 물에서 도울음 드리겠습니다)

구입문의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및 상담

-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051) 864-3740
- 서울·경기: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0335) 34-9490, 39-1906
 - /이전: (0342) 706-3060